



초보자를 위한 양돈 기초강좌

양돈에 있어서는 경영비의 절반 이상이 사료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사료의 합리적 및 경제적인 급여는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금후 자급사료를 합리적으로 급여하는데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망된다. 즉, 사료의 종류와 배합법·조리법 등에 대하여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양돈사료 급여상의 유의점



곽종형
(경상대 축산학과 교수)

1. 사료급여에 있어서의 유의점

1) 돼지의 특성을 인식할 것

가축은 종류에 따라 사료의 소화 흡수 및 동화하는 힘이 다른데, 돼지는 그 소화관이 간단하고 짧으며 단위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각 가축 소화기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표1> 각 가축의 소화기의 크기

축종	위	소장	대장	계	장의 길이 (체장에대한)
돼지	7.2ℓ	7.2ℓ	7.2ℓ	21.6ℓ	15~18배
소	144~180	54.0	28.8	252.0	20~22
말	14.4	21.6	108.0	144.0	9~13
개	4.5	1.4~1.8	0.9~1.1	6.8	5~6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돼지는 소에 비하여 소화기의 크기나 장(腸)의 길이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반추동물(反芻動物)은 사료를 잘 저작하나 돼지는 조사료(粗飼料)의 소화가 곤란하므로 섬유가 적으며 소화가 잘 되는 사료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

반추동물은 평균 65% 정도 소화가 되는 사료가 좋으나, 돼지는 소화율이 85% 정도되는 사료를 줄 필요가 있다. 돼지는 다른 가축에 비하여 발육이 빠르고 번식이 왕성하다는 것은 타가



축에 비하여 사료를 많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그러므로 급여사료가 부족하던가 조성에 결함이 있게 되면 곧 그 영향을 받게 된다.

돼지는 사료의 영향을 잘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경제양돈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강한 사료는 단백질(蛋白質)이 많으며, 단백질 사료는 알칼리도가 높은 사료이다.

동물체는 일정한 알칼리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산도가 높은 것을 계속해서 주면 산독증(酸毒症)에 걸리며 사료의 단백은 지방화를 많이하여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평형을 유지하도록 각종 사료를 배합하는 것이

돼지가 사조(飼槽)나 판자 및 기둥 등을 물고 씹는 것은 영양성분 부족에 기인하는 이기증(異嗜症)이다.

소·말·면양 등은 청초(靑草) 건초(乾草) 고관류(藁稈類)를 주식(主食)으로 하는 초식가축이므로 비교적 사료의 성분에 결함이 적다.

돼지는 곡류(穀類) 또는 그 부산물을 많이 급여함으로 함유되어 있는 영양분이 많으나, 그 균형이 취하지 않으므로 단미사료(單味飼料)에 편중이 되면 여러가지 장애가 일어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돼지는 원래 완건(頑健)하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여러가지 질병·번식장애가 일어나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는데, 그 대부분은 급여사료의 잘못에 기인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돼지는 다른 가축에 비하여 기형(畸形)인 새끼를 많이 낳는데, 이는 주로 급여사료에 기인할 때가 많다.

돼지가 사조(飼槽)나 판자 및 기둥 등을 물고 씹으며 흙을 파고 하는데, 이는 단지 돼지의 악벽(惡癖)으로만 보아서는 안되고 이러한 현상은 영양성분의 부족에 기인하는 이기증(異嗜症)으로서 일종의 병적변상이라 할 수가 있다.

이기의 원인에 있어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칼슘과 철분의 부족이 그 주요인이 될 때가 많다. 또한 사료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사료의 알칼리도의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산도(酸度)가

바람직하다.

2) 상용(常用)사료는 일정하며 가끔씩 변경하지 말 것

돼지를 사육함에 있어서 관용하는 주사료는 일정하게 급여하고 가끔씩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병용하는 사료도 가능한한 일정하게 주는 것이 좋다.

사료를 변경할 때는 서서히 변경하도록 해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 적어도 1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변경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삶은 먹이(煮飼)에 있어서 급히 생사(生飼)로 변경하면 위험하므로 생사로 할 때는 처음 10% 정도에서 시작하여 20%, 30% 생사로 하여 적어도 7일 정도에서 변경토록 해야 한다.

2. 자급사료의 급여

농가에서는 자급사료로 보리·밀·고구마·감자·청애작물·잡초 및 엔시리지 등이 있다. 이들 사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서 전사료의 50%를 자급할 수 있도록 경제적 양돈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자급사료를 급여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자급사료에 순차적으로 길들여지도록 상당량을 채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자급사료만으로는 돼지에 필요한 양분을 충분히 급여할 수 없으므로 병용하는 농후사료는 돼지의 크고 작음과 종모돈·종빈돈 등에 따라 각각 다르다. 특히 발육중의 자돈과 임신돈 및 수유모돈에는 대두박·어분 등의 단백질 사료의 배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 혈액의 순환을 촉진하며 신진대사를 도운다. 과량이면 물을 많이 요구하고 설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료의 이용율을 떨어뜨린다.

NRC에 의하면 돼지의 생체중 10~50kg에 Na가 0.1%, Cl이 0.13%가 요구된다.

소금의 적량과 치사량(致死量)은 <표2>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돼지에 대한 1일 적량은 5~10g으로서 이는

주정박·소주박·비루박을 돼지사료로 이용하는 경우 과량급여는 금해야 한다.

다음은 급여량으로서 농후사료를 줄때보다 채식하는 시간이 많이 요한다.

조강류(糟糠類)는 죽으로 해서 주는 경우 5~7분, 자급사료는 10~15분, 녹이나 엔시리지는 15~20분이 알맞다.

체중·노유 등 급여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급여하는 배합사료의 0.25~0.5% 내외를 첨가하면 된다.

<표2> 소금급여의 적량과 치사량 (단위: g/일)

축종	적량	치사량
소	30~100g	1,500~3,000kg
말	20~50	1,000~1,500
면·산양	10~25	0.125~0.250
돼지	5~10	0.125~0.250
개	0.5~10	0.030~0.060

3. 소금의 급여

동물에 있어서 소금의 급여는 절대 필요한 것으로 그 필요량은 가축의 종류, 일상 급여사료에 따라 다르다. 또 대사사료중의 칼슘(Ca)이나 나트륨(Na)의 배설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료중의 칼리는 소화흡수된 탄산칼리로 되어 혈액중에 들어가 혈액중의 염화나트륨과 복분해되어 염화칼리와 탄산나트륨으로 되어 체외로 배설되어진다.

그러므로 야채나 초류(草類) 등의 칼리가 많은 사료를 많이 섭취하면 나트륨의 배설량이 많으므로 필연적으로 소금을 요구하게 된다. 면양·소·말 등의 초류를 주식으로 하는 가축은 많은 양의 소금을 필요로 하고, 돼지는 급여사료의 성질에 따라 그 필요량이 비교적 적다. 알맞은 양의 소금은 식욕을 증진하며 소화액의 분

5. 향신(香辛)·자극물·알콜

주정박·소주박·비루박 등 돼지사료로 이용하는 경우 과량의 급여를 금하고 조금씩 길들여야 한다.

적은 양이면 사료로 이용가치가 높으나 다량 주게되면 주취(酒醉)상태가 되어 체표가 적변하고 호흡이 빠르고 체력의 소모가 오게 된다.

생강 등의 자극물은 돼지에서 중독은 일어나지 않지만 잔반(殘飯)에 들어가는 정도로는 염려가 없다. **重要**